

'5·18 헬기사격' 전일빌딩 안전 이상 없다

광주시, 기율기·지반 안정성·침하 정밀진단

"건물 전반 특별한 하자 발견 못해"

'광주 1번지'로 불리는 동구 금남로 전 일빌딩의 기율기, 지반 안정성, 침하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정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일빌딩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이 흔적이 확인되면서 원형 보존 여론이 일고 있는 곳으로 2년 전 실시했던 안전진단에서는 일부 위험등급을 받기도 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전일빌딩 안전성 검증을 위한 안전대책 TF 2차 회의에서 건물 기율기 및 지반 침하·안정성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영역의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에 초 2015년 8월 보고서에서 위험등급인 D등급 판정을 받았던 건물 기율기는 현재 진행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 기율기 측정에서는 55~185mm의 편차량을 보여 기율기로 환산하면 1/617~1/194의 범위로 조사됐으나 이번 진단에서는 시공 당시 발생된 시공오차 및 금남로 지하상가와 지하철 공사의 영향으로 추정됐다.

지반 안정성 검토 결과에서도 평상시와 지진시의 설계 지내력 등 허용 지지력을 만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반침하 안전성

도 허용 침하량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반의 처짐각도 허용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 침하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보고서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했던 시설물 외관(기둥·보·슬래브)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재료시험 항목 부분도 전반적으로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용역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건물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물 안전성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보수보강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5·18 역사성을 가진 건물인 만큼 탄산화(중성화·철근 녹발생 요인)에 대한 보

수·보강을 통한 내구성 확보 작업과 리모델링 시 장기 사용 가능 여부,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위원은 건물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확실한 결과물을 제시하고 지반침하 진행성 여부에 대한 공학적 조사 필요성도 제시했다.

현재 진행중인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2015년 8월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한건축학회와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회 등이 용역을 수행 중이며 다음 달 10일께 완료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구조해석과 용어 정리, 공학적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최종보고서는 4월 중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뉴스&정보 브리핑

로봇·3D프린터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신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올해 4차 산업 분야 등 총 17개 자격을 새로 만들고, 내년부터 매년 산업계 주도로 신설이 필요한 자격을 계속 발굴한다. 4차 산업 핵심 기술 자격은 로봇기개발기사·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로봇제어기하드웨어개발기사·3D프린터개발산업기사·3D프린팅전문운용사·의료정보분석사 등 6

개다. 로봇기개발기사는 차세대 제조·의료·안전로봇 등 로봇기공과 관련, 부품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다. 신재생에너지·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자격은 연료전지에너지생산기술기사·폐자원에너지생산기술기사·풍력에너지생산기술기사·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 등 9개다. 환경·자연재해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위해관리기사, 방재기사 등 2개 자격이 신설된다.

정부, 내년 '일자리·4차 산업혁명 예산' 기조

정부가 42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 편성의 4대 핵심분야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00조5000억원이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14조3000억원이다. /연합뉴스

김정남 시신 아직 말레이에

보건장관 "친족 안 나타나"

김정남의 시신이 조만간 북한에 인도될 것이라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유가족이 아직도 시신인도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말레이시아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28일 일간 더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브라마니암 사타시람 말레이 보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시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협의할 김정남 친족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김정남 시신이 지난 26일 한때 반출됐었다는 현지 언론 보도에 대해 "부검당국에 확인해 시신이 반출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하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상황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신은 (현재) 쿠알라룸푸르 종합 병원에 있다"면서 "안전한 해법이 도출될 때까지 시신을 보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브라마니암 장관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김정남 시신은 화장(火葬)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연합뉴스



친환경차 선거 홍보단 출범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친환경자동차 선거 홍보단이 2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나주빛가람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 을 2207명 신규 채용

한전 관련 3사 1837명 뽑아

농어촌공 215명~10% 지역인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 11개 이전 공공기관의 올해 신규 인력채용 예상 규모는 2207명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인재개발위원회는 광주시와 광주고용노동청의 의뢰를 받아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동향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혁신도시로 아직 이전하지 않은 농림수

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2개 기관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한국전력은 사주·송배전·통신·토목·건축 등에서 1200명을 채용한다. 이 가운데 송배전 직종이 568명으로 전체의 47.3%를 차지한다.

지난해 1412명보다 다소 줄었지만 지역인재(광주·전남) 채용목표제, 지역 전문사원제 도입 등으로 15%를 충원할 계획이어서 지역인재 채용은 지난해(8.8%)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한전KPS와 한전KDN은 각 500명과

137명을 선발한다.

한전 관련 3사의 채용 규모만 1837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215명을 채용하며 10%를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37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0명, 한국콘텐츠진흥원 27명, 전력거래소는 20명을 뽑는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2명,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10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명을 채용한다.

이번 조사는 11개 이전기관의 인사담당

자를 대상으로 채용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실제 채용 인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경호 광주지역인재개발위원회 사무처장은 "공공기관 채용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능력중심으로 전환됐다"며 "먼저 목표직무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직무 관련 지식과 교육경험 습득, 자격증 취득 등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채용동향 조사 결과는 지역 대학, 특성화고, 훈련기관 등에 배부되고 광주지역인재개발위원회 홈페이지(www.gwangjuhrd.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담양 '죽화경' 전남 2호 민간정원 등록

전남도가 남도문에 르네상스 선도시업인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담양 '죽화경(죽화경·사진)'을 전남 제2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

담양군 봉산면 유산리에 자리한 죽화경은 1만2611㎡에 100여 품종의 장미와 데이지, 백당나무, 병꽃나무, 산수국, 영춘화 등 341종의 식물이 어우러진 곳으로 정원복, 잔디광장, 체력시설 등을 갖춘 체험 교육형 정원이다.

계곡 부위의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고 장미와 꽃나무, 초화류를 자연스럽게 배치해 '한국의 타사투더의 정원'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1만여 개의 대나무로 엮어진 울타리 안에 꽃과 나무를 심고 장미 덩굴 사이로 360개의 대나무 삼각지지를 배치해 대나무의 고풍 담양을 이미징화했고, 강직하지만 부드러운 '기의 정원'을 표현했다.

이 정원을 가꾼 유영길(51)씨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한국 정경정원을 재구성해 놓은 'The Castle and Line' 작품으로 호평을 받은 정원디자이너이다.

유씨는 "담양을 상징하는 대나무와 서양을 상징하는 장미를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야생화와 수목을 배치해 전통과 현대미가 조화를 이루는 풍경정원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문화와 예술이 함께 숨쉬는 예술정원의 롤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죽화경은 매년 장미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제8회 데이지·장미축제를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개최한다. 야간에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조명시설과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로 설치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